

2025.03.11.(화)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로보티즈

모든 로봇의 핵심 부품은 액추에이터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액추에이터가 로봇 제조 공급자 우위, 단기적 성과 가능

로보티즈 전체 매출액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3Q24 기준 98.6%)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등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 로봇의 관절 및 이동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모든 종류의 로봇에 들어가는 필수 핵심 부품이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 등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약 40~50개의 액추에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액추에이터 제조 기업은 필수 부품 공급자 위치에서 가격 협상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개화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및 보행 로봇 등 제조 과정에서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다. 액추에이터에 포함되는 감속기의 경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 M/S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동사는 이를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한 몇 안되는 기업이며, LG전자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까지 중장기적 수혜 강도가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기업을 전략적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확장 개연성이 높은 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 받는데(PSR: 레인보우로보틱스 300배 이상, 두산로보틱스 80배 이상, 유일로보틱스 20배 이상) 동사는 PSR 10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Top-Tier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기술 보유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 브랜드는 '다이나믹셀(Dynamixel)'로 저가형 모델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세분화에 따라 약 100여개의 다양한 제품 Line-up을 보유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는 모든 관절에 대응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 비중은 3Q24 기준 약 76%로 NASA, Disney 등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사다. 1)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 프로토타입에도 동사의 다이나믹셀이 탑재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2) Google은 로봇 개발 기업 '엠프로닉' 시리즈 A 펀딩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 상황인데, Google의 딥마인드와 스탠포드 대학이 협력하는 피지컬 AI '알로하 프로젝트'에 동사의 다이나믹셀을 사용하면서 굵직한 레퍼런스를 확보 중이다. 또한 3) 지난 4일 로봇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제품 구입 및 연구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LG전자는 동사의 2대주주(지분율 7.3%)로 경영 참여 목적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만큼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동사의 액추에이터 적용 확대가 예상된다.

신규 제품 출시 및 자율주행 로봇 판매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전망

올해부터 실적 개선 가시성이 뚜렷하다는 부분에 주목이 필요하다. 1) 2024년 5월 출시한 신규 제품 다이나믹셀-Y을 활용해 협동 로봇인 오픈매니플레이터-Y(Open Manipulator-Y)를 개발했으며, 올해 5월부터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축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자율주행 로봇은 올해부터 기존 구독 모델 베이스에서 제품 판매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매출 볼륨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단가는 약 3천만원으로

LG전자향 40대를 비롯해 현재까지 납품 확정 물량은 연간 20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올해는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한 액추에이터 부문 약 30% 성장, 자율주행 로봇 200대를 가정하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매출액 약 450억원,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9	22	26	29	
영업이익	(2)	(1)	(2)	(5)	
세전이익	(1)	(0)	(2)	(3)	
순이익	(0)	1	(0)	(1)	
EPS	(12)	65	(22)	(107)	
증감율	적전	흑전	적전	적지	
PER	(1,145.8)	380.0	(1,022.7)	(286.0)	
PBR	2.3	4.0	3.1	4.0	
EV/EBITDA	1,488.0	217.8	6,191.2	0.0	
ROE	(0.2)	1.0	(0.3)	(1.4)	
BPS	5,894	6,186	7,151	7,607	
DPS	0	0	0	0	

도표 1.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라인업

DYNAMIXEL-Y (NEW)
 - High Performance Frameless motor
 - Multi-turn Absolute Encoder
 - Integrated Electric Brake for Safety
 - Integrated Dynamixel Drive(DYD)
 - Compact & Simple Design with Hollow Shaft
 - Shaft Dynamic Motor Controller

DYNAMIXEL DRIVE (DYD)
 - High Durability and Strong Rigidity
 - Variable Gear Ratio
 - High Efficiency & Low Backlash
 - Lightweight & Compact Gear Module

DYNAMIXEL-X
 - High Power, High Precision and Low Backlash
 - High Resolution with Combination of Incremental Encoder and Contactless Absolute Encoder

DYNAMIXEL-P
 - Aluminum Casing
 - Compact Size & Design with Improved Torque
 - Enhance Durability & Expandability
 - Hollow Back Case Minimizes Cable Stress (3-way-routing)

Robot Actuator
DYNAMIXEL

자료: 로보티즈, 하나증권

도표 2.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고객사

자료: 로보티즈, 하나증권



태광

미국과 중동이 이끌 슈퍼사이클

[출처] IBK투자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매출 인식 지연 영향

태광 4Q24 영업실적은 매출액 662억 원(YoY -7.3%), 영업이익 97억 원(+28.8%)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140억 원 대비 30.7% 하회하였다. 수익성이 부진했던 이유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24.11까지 매출 인식 지연과 일회성 비용 15억 원이 반영(성과급은 20억 대, 재고자산 평가 환입 존재)되었다. 한편, 4Q24 수주는 70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연간 수주는 슈퍼사이클 초입인 3,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높아지는 탐라인, 증가하는 수익성

작년 연간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 수익성 제품인 Alloy와 Stainless의 매출 비중(두 제품 합산 매출비중 2022 39.8% -> 2023 40.3% -> 2024 43.1%)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LNG 터미널 프로젝트 착공 재개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책적 지지를 바탕으로 LNG 터미널 향 고 수익성 제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수출 비중: 2022 18.4% -> 2023 22.4% -> 2024 27.9%)

두 번째는 중동에서의 믹스 개선이 기대된다. 최근(2022~2023)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지역의 발주는 Gas+Chem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설계를 마치고, 기자재 발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두 공종 모두 Oil 공종에 비해 Stainless 및 Alloy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어, 중동에 강점을 가진 동사는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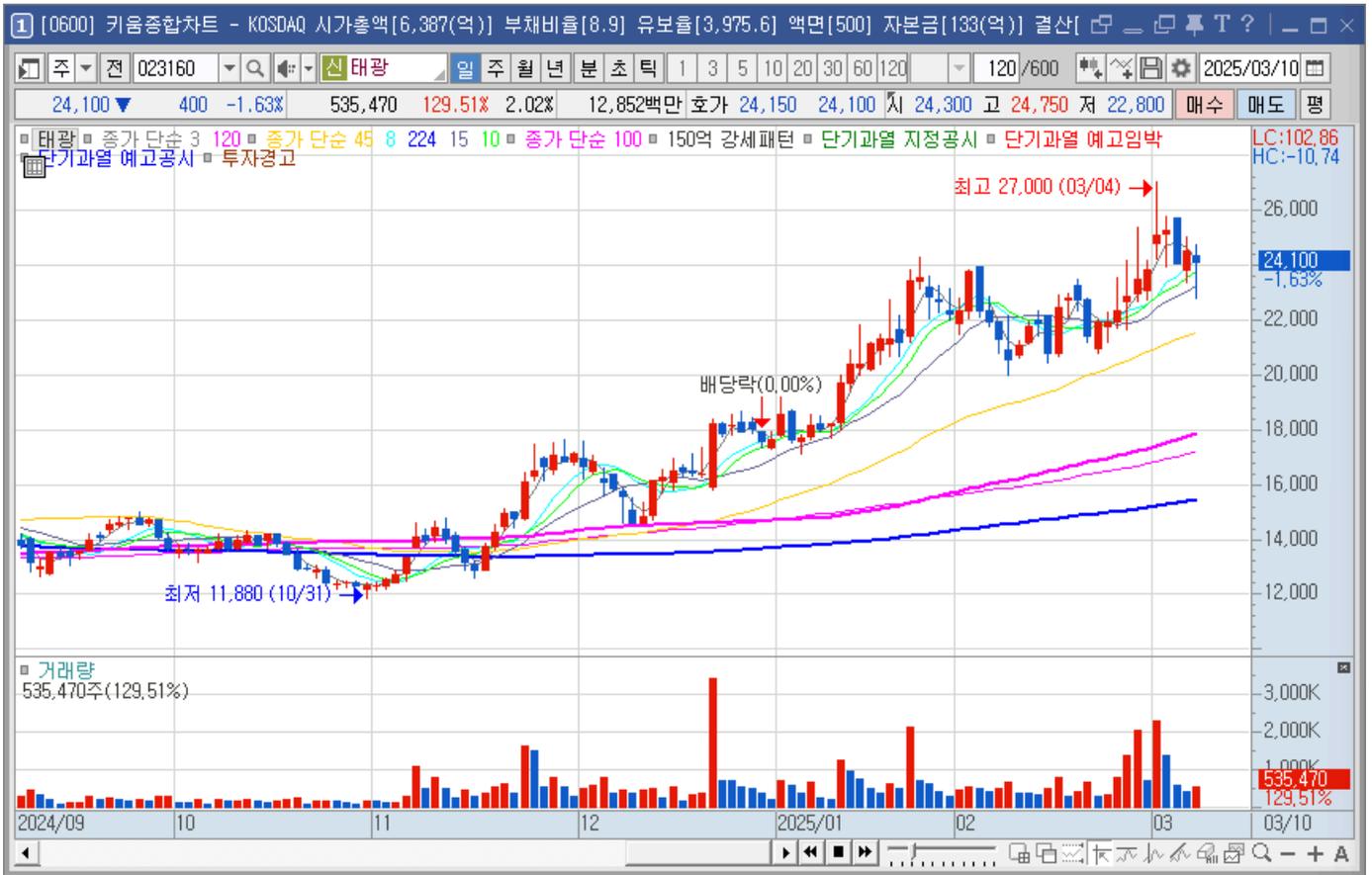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0,000원으로 상향

당사는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및 플랜트 기자재 업체 중 Top-pick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0,000원으로 상향한다. 동사는 1) 올해 탐라인과 수익성 성장이 전망되며, 2)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50	312	267	308	338
영업이익	45	58	40	54	64
세전이익	47	71	58	69	82
지배주주순이익	36	55	45	54	64
EPS(원)	1,350	2,078	1,695	2,025	2,399
증가율(%)	135.1	54.0	-18.4	19.4	18.5
영업이익률(%)	18.0	18.6	15.0	17.5	18.9
순이익률(%)	14.8	18.6	17.2	17.9	19.5
ROE(%)	7.8	10.9	8.2	9.1	9.9
PER	11.9	7.1	10.4	11.9	10.0
PBR	0.9	0.7	0.8	1.0	0.9
EV/EBITDA	7.3	5.6	8.4	9.0	7.4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바이오플러스

2025년 매출과 이익 고성장 전망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4년 4분기부터 실적 크게 회복하는 모습

동사는 히알루론산(HA) 기반, 필러, 유착 방지제, 관절용/ 방광용 조직 수복제, 그리고 화장품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표1). 2024년 전사 연결 매출액은 664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이었다. 유통 구조 조정 등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대비로는 2.1% 성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4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0% 증가한 291억원, 영업이익이 114.5% 증가한 135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부터 크게 회복된 것이다. 따라서 2025년 영업실적도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구조적인 영업실적 개선, 2025년 성장에 대한 기대도 크다

주요 제품별 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러(HA 기반) 수출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동사의 HA 필러는 2021~ 2022년에 30~40%대 성장했으나 2023년에 10%대로 성장 폭이 떨어졌다. 2024년 상반기에 유통구조를 저가 ODM업체 영업에서 탈피하고 직수출, 대형 거래처 위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HA 필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4분기 HA 필러 수출이 210억원 (추정치) 내외로 증가하면서 4분기 전체 필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8% 증가한 247억원 내외로 추정된다(정확한 수치는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확인 가능). 이러한 추세로 2025년 필러 매출은 52.3% 증가한 766억원으로 전망된다.

둘째, 2024년 메디컬 디바이스는 전년 수준인 70억원대, 화장품은 소폭 감소한 30억원대로 추정된다. 향후 화장품 매출을 크게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사 연결 매출액이 41.3% 증가한 938원, 영업이익은 70.9% 증가한 4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5년 수출 비중은 72% 내외가 될 것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57	25	21	362	19.2	12.7	3.7	22.0	1.0
2023	65	28	26	438	15.7	11.7	3.3	21.2	1.0
2024E	66	23	16	273	26.0	17.1	3.5	12.6	1.0
2025E	94	40	30	517	13.7	9.8	2.9	21.8	1.0
2026E	114	50	37	646	11.0	7.9	2.4	22.4	1.0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아스테라시스

계획대로 이어질 고성장

[출처]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

4Q24 Review: 중요한 건 성장의 방향

2024P 매출액 288억원(+64.8% YoY), 영업이익 67억원(+328.6% YoY)으로 큰 폭의 성장을 시현했다. RF 장비 및 소모품의 매출액은 63억원으로 상장 당시 회사가 제공했던 가이드스(53억원) 대비 19.5% 상회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신규 모노폴라 RF 장비 쿨페이즈가 국내와 브라질에서 좋은 판매 추이를 기록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다만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와 상장 당시의 가이드스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하자보수충당금 설정(5억원 반영)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충당금의 영향을 제외하면 수익성 개선도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쿨페이즈의 고성장은 이어질 것

2025F RF 장비 및 소모품의 매출액은 230억원(+264.9% YoY)으로 전망한다. 출시 3개월 후 장비 확산 속도는 쿨페이즈가 기존 장비 리프테라의 약 3배 정도 수준으로 파악된다. 리프테라가 브라질 누적 판매대수 1,000대까지 3~4년 소요됐음을 감안하면 2025년 국내와 브라질 각각 누적대수 1,000대 달성은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와 브라질 이외의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의 경우 1분기 내로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멕시코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진출 이전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유지

아스테라시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쿨페이즈의 고성장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쿨페이즈가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기존 HIFU 장비인 리프테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2월 24일 보호예수가 종료되었던 1개월 락업 물량의 경우 대다수의 물량이 동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추가적으로 매도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아 오버행 이슈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P	2025F
매출액	0	16	17	29	50
영업이익	0	2	2	7	19
영업이익률(%)		11.4	8.9	23.1	38.5
세전이익	0	1	1	6	1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0	1	1	5	16
EPS(원)	0	40	29	175	442
증감률(%)	적지	적지	-28.0	498.5	153.3
ROE(%)	n/a	n/a	14.3	56.2	78.5
PER(배)	n/a	n/a	n/a	58.4	23.1
PBR(배)	n/a	n/a	n/a	29.8	13.0
EV/EBITDA(배)	n/a	0.8	1.3	45.1	17.3

자료: 아스테라시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에코마케팅

여전히 글로벌 진출을 기다리는 중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하향

신제품 및 글로벌 진출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또 한번 연간 영업이익은 500억원 내외를 기록했다. 수 년째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며, 글로벌 진출이나 데일리엔코의 새로운 소비재로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지속된 실적 부진과 디레이팅으로 각 사업부별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존 SOTP에서 P/E 방식으로 변경하며, 목표 P/E 12배(기존 별도 사업부 밸류에이션)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13,000원(-13%)으로 하향한다.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실적 및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Q OP 107억원(-24% YoY)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945억원(+8% YoY)/107억원(-24%)으로 컨센서스(155억원)를 하회했다. 부문별 영업이익은 별도/데일리엔코/안다르 각각 78억원(+13%)/-14억원(적전)/79억원(+52%)을 기록했다. 데일리엔코의 지속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적자전환 했는데, 2023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 출시가 필연적이다. 별도 매출액은 152억원(+24%), OPM은 51%(-5%p)로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했다. 안다르는 성수기 효과로 매출액 624억원(+8%)을 기록했다.

2분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예상

작년 초부터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안다르 등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예상 대비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다. 호주와 미국 모두 올해 2분기 본격적인 글로벌 매출 성장을 목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부 성과가 확인될 것이다. 2분기에 글로벌 진출이나 신규 제품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352.8	350.5	355.2	397.6	
영업이익	56.6	55.1	47.0	54.2	
세전이익	56.3	59.7	50.8	50.6	
순이익	38.2	40.2	30.9	33.3	
EPS	1,179	1,242	971	1,058	
증감율	38.87	5.34	(21.82)	8.96	
PER	12.26	8.29	10.39	8.97	
PBR	2.45	1.46	1.23	1.06	
EV/EBITDA	6.11	4.10	3.71	2.96	
ROE	21.94	19.39	12.93	12.47	
BPS	5,903	7,033	8,217	8,994	
DPS	90	0	150	300	

그림 1. 안다르 전지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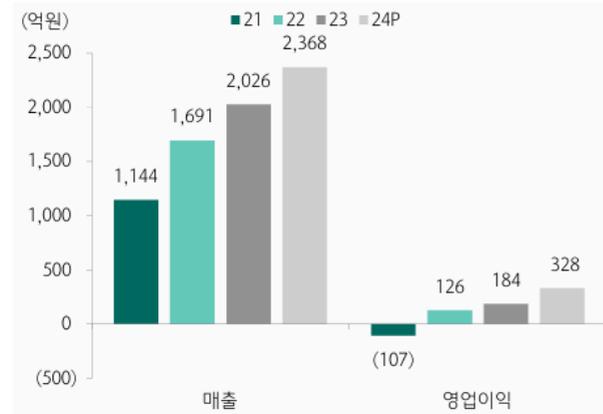
자료: 에코마케팅, 하나증권

그림 2. 시드니 변화가 안다르 매장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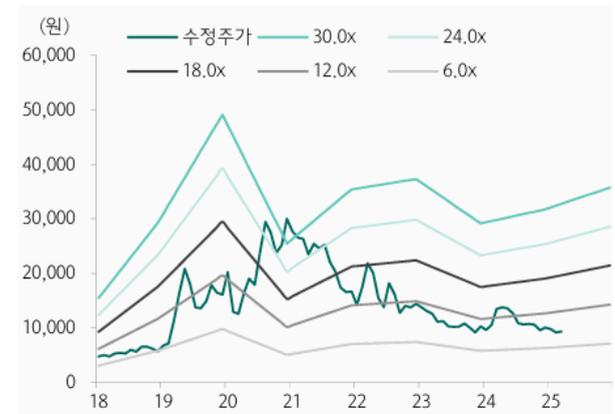
자료: 에코마케팅, 하나증권

그림 3. 안다르 실적 추이



자료: 에코마케팅, 하나증권

그림 4. 12MF P/E 밴드차트



자료: 에코마케팅, 하나증권





PI첨단소재

중국이 끌고, 미국이 밀고

[출처] 키움증권 김소원 애널리스트

1Q25 영업이익 70억원, 시장 기대치 부합할 전망

1Q25 실적은 매출액 607억원(+10% QoQ, +17% YoY), 영업이익 70억원(+160% QoQ, +183% YoY), opm 12%으로, 시장 컨센서스(66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말 재고 조정 이후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재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효과에 힘입어 중화권 중심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Counterpoint에 따르면 1월 중화권 OEM 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900만대(+41% YoY, +18% YoY)로 급증했다. 더불어 1Q25에 방열시트용 PI 필름의 장기공급 계약 또한 완료될 전망이다. 올해 장기공급 계약의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5% 성장하며, AI 디바이스 시장 확대와 함께 방열시트용 PI 필름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2Q25부터 초극박 PI 필름 신규 공급 전망

2Q25 매출액 771억원(+27% QoQ, +5% YoY), 영업이익 171억원(+144% QoQ, -4% YoY), opm 22%으로, 초극박 PI 필름의 신규 공급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H25 아이폰17 에어(가칭) 모델의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동사의 초극박 PI 필름의 수혜가 예상된다. 초극박 PI 필름은 동사를 포함한 두 업체만 생산 가능한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으로, 일반 PI 필름 대비 ASP가 약 2.5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며, 올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다. 2025년은 매출액 2,749억원(+9% YoY), 영업이익 454억원(+30% YoY)으로, 초극박 PI 필름의 신규 공급과 방열시트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첨단산업용은 전기차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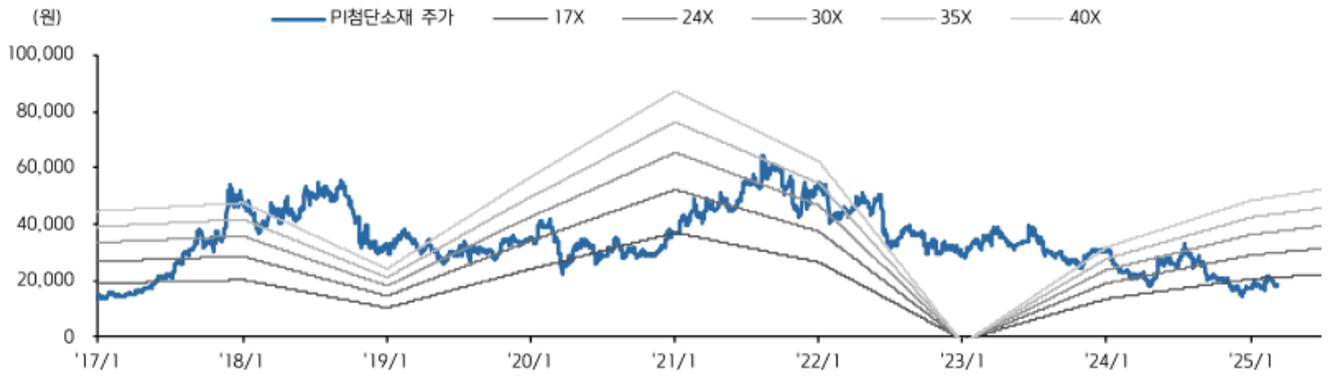
중화권과 북미 고객사의 더블 모멘텀 예상

주가는 12개월 Forward P/E 14.7배로,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을 하회하고 있다. 동사는 전사 매출액의 약 25%가 중화권 세트향으로 발생 중임에 따라 이구환신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며, 향후 초박형 스마트폰 모델 출시 확대와 함께 초극박 PI 필름의 침투율 확대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4,000원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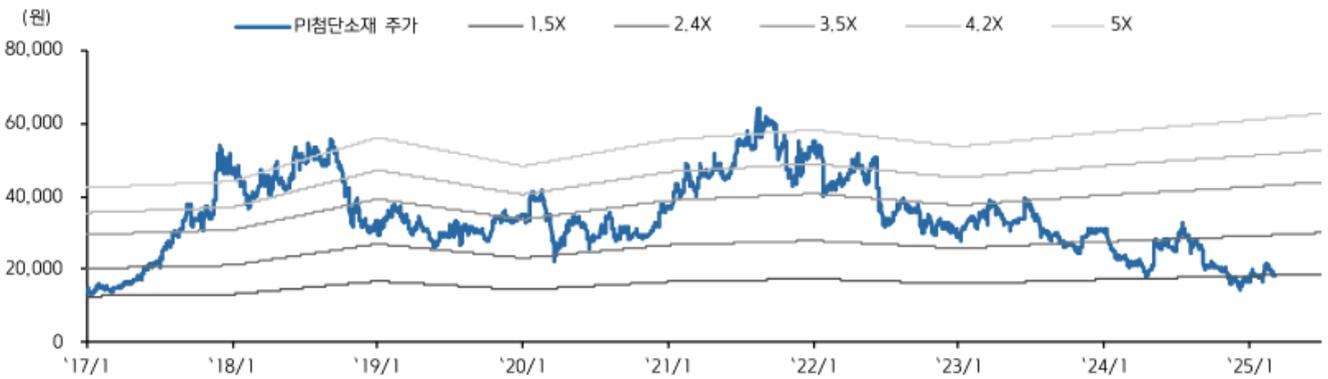
(억원)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764	2,176	2,513	2,749
영업이익	521	-39	349	454
EBITDA	780	253	673	840
세전이익	540	-66	301	445
순이익	457	-18	234	35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57	-18	234	356
EPS(원)	1,557	-61	796	1,211
증감률(% YoY)	-28.6	적전	흑전	52.1
PER(배)	18.6	-498.8	21.2	15.3
PBR(배)	2.49	2.84	1.47	1.52
EV/EBITDA(배)	12.0	39.3	8.2	6.8
영업이익률(%)	18.8	-1.8	13.9	16.5
ROE(%)	13.7	-0.5	7.2	10.2
순차입금비율(%)	25.8	31.7	17.5	7.6

PI첨단소재 12개월 Forward P/E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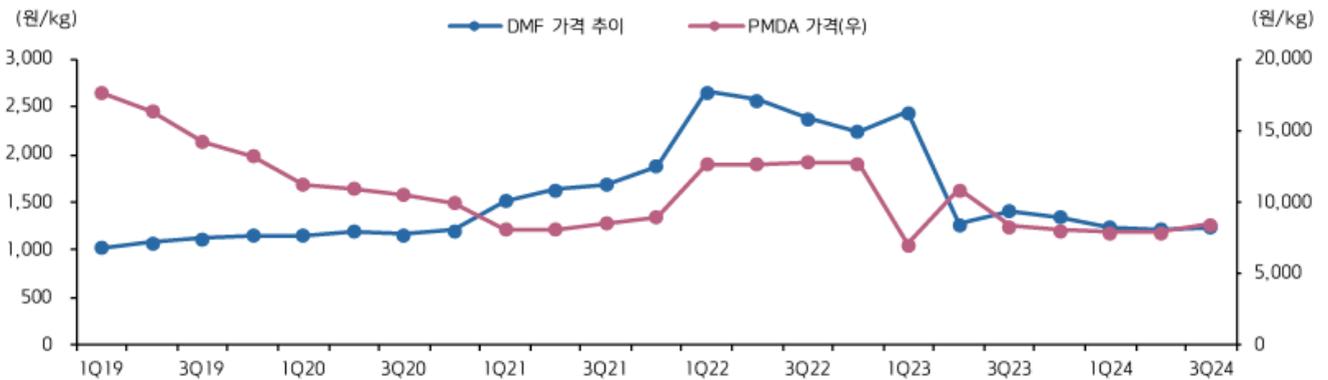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I첨단소재 12개월 Forward P/B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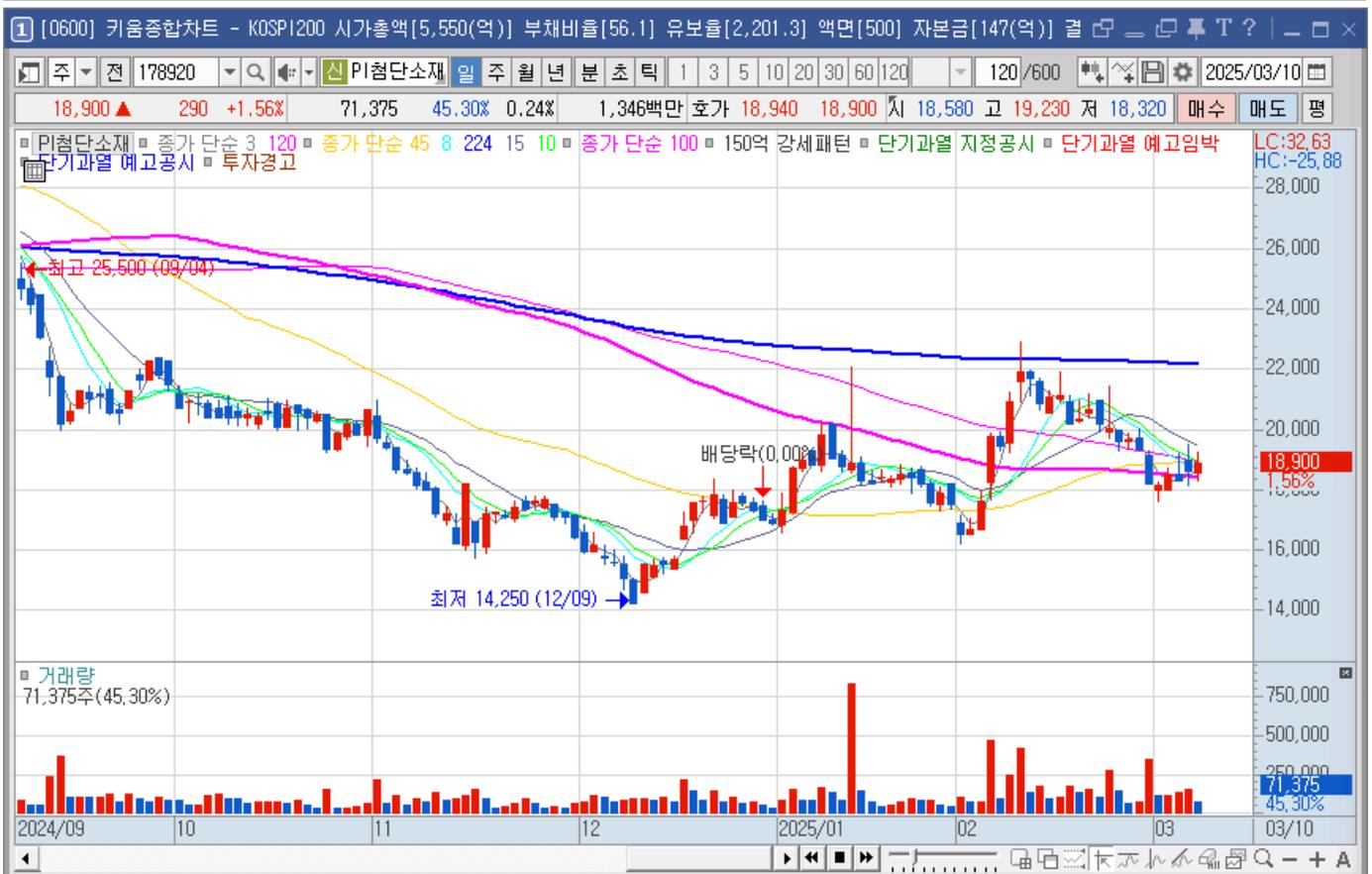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I첨단소재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자료: PI첨단소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제철

업황 개선 기대감 반영 중

[출처] NH투자증권 이재광 애널리스트

철강업황 개선 기대감 반영 목표주가 상향

목표주가 40,000원으로 기존대비 25% 상향.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하여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 동사 주가는 연초대비 39.2% 상승했는데 상술한 기대감과 최근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수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국 관세부과 및 노조 파업 장기화 등 악재도 상존하나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주가는 호재에 더 민감했던 것으로 판단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과 경기 부양 기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철강 생산량 관리 및 산업 구조조정 발언에 조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업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 포함. 감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0년까지 1.5억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참고로 중국은 '24년 9.9억톤 생산

한편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 부양책에는 GDP 대비 4%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율, 1.3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4.4조위안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이 포함.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올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2023	2024P	2025F	2026F
매출액	25,915	23,226	25,059	25,816
증감률	-5.2	-10.4	7.9	3.0
영업이익	798	314	656	970
증감률	-50.6	-60.6	108.6	47.9
영업이익률	3.1	1.4	2.6	3.8
(지배지분)순이익	461	103	250	461
EPS	3,456	770	1,871	3,458
증감률	-54.7	-77.7	143.0	84.8
PER	10.6	27.3	15.7	8.5
PBR	0.3	0.1	0.2	0.2
EV/EBITDA	5.2	5.1	4.9	4.2
ROE	2.4	0.5	1.3	2.4
부채비율	80.6	79.5	79.4	78.2
순차입금	7,485	6,798	7,093	6,320

단위: 십억원, %, 원, 배

'24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중국 철강 수출량은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